

KDC 예술류(600) 분류항목전개의 변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s of Expansion of Classification Number of the Arts in KDC

정옥경(Ok-Kyung Chung)*

【초 록】

본 연구는 KDC 예술류의 분류항목의 전개가 초판에서 5판까지 개정되는 동안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분석하여 KDC 예술류의 분류항목전개의 개선점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KDC 초판에서 5판까지 예술류에 사용된 용어의 변천, 보조표 및 주기의 변천과 분류항목전개의 변천을 분석하였다. KDC의 예술류는 3판까지 큰 변화가 없었으며, 분류항목전개의 변화는 4판과 5판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나, 전판의 오류와 문제점이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았으며, 포함주가 많아 분류항목의 전개가 다른 분류표보다 빈약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한국십진분류법, 분류, 예술, 보조표, 주기, 건축술, 조각, 공예, 서예, 회화, 사진, 음악, 연극, 오락, 스포츠

【Abstract】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ideas for improvements of classification and expansion of the arts in the KDC. In order to this study, analysed changes of terminology, auxiliary tables and notes, and expansion of classification number of the arts from 1st edition to 5th edition of the KDC. The arts of KDC did not changed from 1st to 3rd edition and changed in the 4th edition and 5th edition, and errors and problems of previous edition were not improved, and Classification number and expansion of KDC found out poor rather than different classification schedule because had a lot of Including notes. The result of analysis proposed to improved method to solve the problems.

【Keywords】

KDC,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Art, Auxiliary Table, Notes, Architecture, Sculpture, Artistic Industry, Calligraphy, Painting, Photography, Music, Stage Presentation, Amusements, Sports

1. 서론

우리나라의 표준분류표인 KDC는 1964년에 초판이 간행된 이후 4번의 개정절차를 거쳐 2009년 제5판을 발행하였다. 초판이 간행되던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조선십진분류표는 4자리까지만 전개되어 장서규모가 광범하고 큰 도서관에서의 사용이 불편하였으며, DDC는 서양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사정에 맞지 않아 일부 도서관에서는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일부 항목을 새로이 전개하거나 고쳐서 사용하였다.¹⁾ 그래서 듀이 십진분류법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분류기호의 배정과 순위의 순서에 있어,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

- 1) DDC의 자극우위권에 의한 전개 및 고쳐쓰기 방식을 채택하여 만든 분류표로는 “朝鮮に於けるデュイ分類法, 朝鮮之圖書館.” 第4卷 第1號. 1934. 3. 김중환 역편. 듀이십진분류법[축소 제7판]. 서울: 국립도서관, 1955. 국회도서관 편. 듀이十進分類法: 主題表, 主綱表, 主目表, 附東洋關係細分展開表. 서울: 국회도서관, 1959.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편. DDC 東洋關係項目展開表. 수정판. 서울: 동도서관, 1984. 경북대학교 도서관 역편. 한국식 전개를 가미한 듀이십진분류법 및 상관색인. 개정표준 제15판. 대구: 동도서관, 1963. 이재철. 한국도서관을 위한 듀이십진분류법(제17판)의 전개 및 고쳐쓰기표. 비교정판(상). 서울: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1966. 등이 있다.

*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okchung@incheon.ac.kr)

될 경우에 생길 부득이한 모순을 최소한으로 시정해서, 하나의 표준을 만들어 보고자 한 것이 KDC초판의 간행 동기였다. 그러나 초판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과 그릇된 점, 또 오자와 탈자가 많아 수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2년 만인 1966년에 수정판을 간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간행된 수정판은 초판의 오자와 탈자를 교정하는 것이 핵심 개정방침이었기에 초판의 분류항목전개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KDC 2판이 발간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분류표의 미비점이 많이 발견되고, 분류표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학문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제2판의 뚜렷한 미비부분과 모순된 내용을 최대한으로 보완하여 1980년 14년 만에 제1권 본표와 제2권 상관색인으로 구성된 제3판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3판이 발행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분류표의 틀이 좁고 짜임새가 모자라 도서관에서 분류하는데 큰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자 1990년 분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판의 개정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개정내용은 류·강·목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학문발전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시켜 전개하고, 3판의 정신을 가능한 한 살리되 세목부분은 개정 또는 세분전개하며, 적절하지 못한 항목은 신항목으로 대체하고, 과학기술 분야 등 급변하는 주제는 과감히 세분 전개한다(한국도서관협회 1996)는 개정방침을 기본으로 하여 DDC 20판(1989년)과 일본십진 분류법 제9판 시안 등을 참고하여 일선 도서관의 분류담당 사서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으로 수용 전개하여 3판이 간행된 지 16년만인 1996년 제4판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제3판의 구성체제 및 항목전개의 큰 변화는 없었으며, 항목 내에 규정된 주기가 매우 빈약하고, 보조표를 활용한 기호합성의 지시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분류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비판하게 된다(윤희운 2010).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학문의 발전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4판을 개정하기 위한 분류위원회를 2007년에 구성하게 된다.

KDC 제5판은 4판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학문체제나 자료의 구성면에서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분류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히 본표와 상관색인을 한글판으로 한다는 개정방침에 따라 2009년 발행하게 된다. 이렇게 5판까지 개정되어 온 KDC는 그동안 학문체제나 자료의 구성면에서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분류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고 하지만 분류항목의 전개가 완전하게 조정이 되지 않았으며, 기호합성을 위한 보조표의 사용과 주기의 설명에 일관성이 없고, 새

로운 학문의 발전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분류항목의 재배치와 삭제에 따른 오류와 안내가 미흡하여 분류의 혼동을 초래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풀이 되고 있는 문제가 향후 개정판에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초판부터 5판까지 분류항목의 전개를 비교분석하여 잘못 개정한 부분과 전판의 문제점을 그대로 수용한 항목을 밝혀내어 새로운 개정판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KDC 초판에서 5판까지 개정되는 동안 예술류의 분류항목의 전개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분석하여 각판의 예술류에 전개된 분류항목의 오류와 문제점이 개정판에서는 개선되었는지, 되풀이되었는지를 밝혀 그 문제점이 또 다른 개정판에 되풀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KDC 초판부터 5판까지의 예술류에 사용된 용어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으며, 둘째, KDC 초판부터 5판까지의 예술류에 사용된 주기 및 보조표의 사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KDC 초판부터 5판까지 예술류의 분류항목의 전개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분석하여 각판에 나타난 오류와 문제점을 밝혀 그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2. 예술류(600)에서의 용어변천

예술은 원래 기술과 같은 의미를 지닌 어휘로서, 어떤 물건을 제작하는 기술능력을 가리켰으나, 오늘날에는 미적작품(회화, 조각, 음악, 문예 등)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활동을 지칭한다. 그 어의를 분석해 보면 그리스어 테크네(technē), 라틴어 아르스(ars), 영어 아트(art), 독일어 쿤스트(kunst), 프랑스어 아르(art) 등도 일반적으로 일정한 과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숙련된 능력 또는 활동으로서의 기술을 의미했던 말로서, 오늘날 미적의미에서의 예술이라는 뜻과 함께 수공 또는 효용적 기술의 의미를 포괄한 말이다. 이러한 기술로서의 예술의 의미가 예술활동의 특수성 때문에 미적의미로 한정되어 기술일반과 예술을 구별해서 미적기술(fine art)이라는 뜻을 지니게 된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이다. DDC의 초판의 주류구분의 예술(700)은 fine art로 되어 있다. 예술의 한자어를 보면 예(藝)는 본래 '심는다'는 뜻으로 기능과 기술을 의미하며, 술(術)은 본래 '나라 안의 길

을 의미하여, 이 길은 어떤 곤란한 과제를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행방도로서 역시 기술을 의미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예술은 고대부터 동양에 존재하였으며, 후한서(後漢書) 안제기(安帝紀)에 이미 백가예술(百家藝術)이라는 기록이 나타난다(동아원색대백과사전 1989). 주체적인 개물(個物)을 통하여 보편적인 표현을 하고자 하는 기술인 동시에 지적 활동인 예술류(600)에 사용된 용어들이 KDC가 제5판까지 개정되는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초판부터 5판까지 비교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초판에서 표준구분의 정기간행물이란 용어가 3판에서 축차간행물로, 4판에서 연속간행물로 바뀌었다. 그 의미의 차이는 없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 ② 4판까지 680.6 예술단체로 전개된 용어가 5판에서 공연예술단체로 변경된 것은 분류기호가 예술분야의 모든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극공연단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분류항목의 범위에 적절한 용어로 변경되었다.
- ③ 건축술(610-619) 아래에 전개된 용어 중에 2판까지 사용된 '내실'을 '거실'로, '클럽'을 '클럽'으로, 4판에서 '음악당'을 '음악실'로 다시 '음악당'으로 오늘날 사용되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 ④ 초판부터 사용된 표목어 조각(620-629)을 5판에서 조각 및 조형예술로 범위를 넓혔다.
- ⑤ 공예 및 장식미술(630-639) 아래에 전개된 의장 및 장식(639)이 4판부터 장식예술로 변경되고 산업디자인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컴퓨터 응용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이 새로운 용어로 4판부터 658 도안, 포스터와 함께 표목어로 삽입 전개하였다.
- ⑥ 서예(640-649)와 회화(650-659)에서는 용어의 변화가 없었다.
- ⑦ 초판부터 사용된 사진술(660-669)을 5판에서 사진예술로 변경하였다. 사진술하면 예술적인 의미보다 기술이 강조됨으로 사진예술로 변경하였다. 소형영화를 영상물 및 비디오 촬영술로 용어를 변경하여 관련분야를 세분 전개하였다.
- ⑧ 제5판에서 음악(670-679) 아래에 사용된 용어는 4판까지 변화가 없었으며, 5판에서 피리악기류를 목관악기로, 국악을 한국음악 및 동양전통음악으로 용어를 변경한 것은 주제의 범위에 맞는 적절한 용어

로 조정한 것이며, 북한음악이란 용어를 채택 전개하였다.

- ⑨ 4판까지 사용된 연극(680-689)을 5판에서 공연예술 및 매체예술로 변경하고, 그 아래에 전개된 라디오극(686)을 라디오 및 음성예술매체로, 텔레비전극(687)을 텔레비전극 및 시청각매체 방송예술로 포괄적 의미를 가진 용어로 변경하였다.
- ⑩ 3판까지 사용된 용어 '오락, 운동(690-699)'은 4판에서 '체육학, 스포츠'로, 5판에서는 '오락, 스포츠'로 변경하였고, 4판부터 컴퓨터게임, 전자오락의 용어 등과 같이 새롭게 생겨난 주제를 사용하여 분류의 중복을 피하였다.

이상과 같이 판에 따라 용어의 변화는 구표목 중 적절하지 못한 항목을 신항목으로 대체한 것이 대부분이며, 하위개념에 국한된 용어를 상위개념의 용어로 바꾸어 분류의 범위를 넓혔다. 그리고 개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분류항목의 표목어로 새 용어를 사용하였다. 음악과 디자인에 컴퓨터가 응용되면서 전자음악과 그래픽디자인이라는 용어를 분류항목에 새로운 표목어로 전개하였으며, 음악(670), 공연예술 및 매체예술(680), 오락, 스포츠(690)분야에서 새로운 용어들이 도입되어 새 분류항목으로 세분 전개되었다. 그 이유는 상위 주제만 표목어로 채택하고 있던 각종 악기, 유형별 공연, 각종스포츠별 종목들이 개별 표목어로 세분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3. 예술류(600)의 주기 및 보조표의 변천

3.1 주기의 변천

KDC는 분류항목만을 나열한 분류표로는 정확하게 분류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주요 분류항목에 주기를 달아 분류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첨부된 주기는 최대한 간략한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KDC는 초판부터 5판까지의 서설에서 '주의 설명'아래에 주기의 유형을 범주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8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한국도서관협회 2009).

- (1) 주요 분류항목에 대한 정의와 간단한 설명을 가지고, 또 내포된 개념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 (2) 분류항목에 관련된 주제와 접근된 주제, 잘못 분

류할 가능성이 높은 다른 분류기호를 갖는 주제에 대한 안내사항을 주를 통해 표시하였다.

- (3) 분류표전개에 정조의 차이가 있음은 사실이다. 앞으로의 연구를 기다려야 할 세분, 이른바 입석의 토픽에 대해서는 소주제까지 상세히 전개하는 것을 피하고 그 대신 이를 주제에 열거하였다.
- (4) 고문헌의 분류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서명을 주제 예로 든 것이 있다.
- (5) 필요한 곳에서는 역시 분류에 도움이 되도록 인명과 지명을 수록하였다.
- (6) 앞의 초기성에서 예시한 각종 조기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구분의 전개를 지시하고 예를 들었다.
- (7) 양자택일이 있는 분류항목 아래서는 도서관에 따라 임의로 택일할 수 있도록 주로 설명하였다.
- (8) 분류에서 참조가 필요한 항목에는 주의 끝에 참조표시를 열거하였다.

이와 같이 구분한 주기가 실제 본표상에 사용된 주기의 유형에는 차이가 있다. KDC 초판부터 5판까지 본표에 사용된 주기를 분석해 보면 정의 및 설명주, 범위 및 포함주, 참조주, 분류지시주, 타분류지시주, 재배치주, 이전표목주, 이전분류기호주, 보조표첨가주, 세분지시주, 양자택일주, 미사용주, 주제구분지시주, 항목열거주 등 14개의 유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권홍정(2002)과 이승민(2000)은 KDC4판을 기준으로 주의 유형을 14가지와 13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각괄호를 사용하여 이전판의 분류기호의 삭제 또는 재배치를 알려주는 미사용주의 포함여부의 차이이다. 윤희운(2010)은 KDC 5판을 기준으로 주의 유형을 정의주, 첨가주, 분류지시주, 타분류지시주, 세분지시주, 포함주, 양자택일주, 참조주 등 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KDC 초판부터 5판까지의 서설에 제시된 주기의 유형은 동일하지만 실제 예술류에 사용된 주기의 유형을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이 판에 따라 동일하지 않으며, 주제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다.

<표 1>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예술류의 분류항목을 초판부터 3판까지 비교해 보면, 초판이 848항목, 2판과 3판은 849항목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주기의 유형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사용된 주기의 유형을 보면 초판에서는 포함주, 참조주, 분류지시주, 양자택일주, 보조표사용주, 주제구분주, 세분지시주, 항목열거주 등이

다. 사용한 주는 263개이며, 주로 사용된 주기의 유형은 포함주(137개)와 참조주(98개)이다. 항목열거주는 2판에서 포함주로 변경한 후 KDC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2판은 개정방침에서 밝혔듯이 초판과 큰 변화 없이 거의 동일하며, 포함주와 참조주에서 7개가 늘었다. 3판에서 처음으로 재배치주와 미사용주가 도입되었다.

<표 1> KDC 초판부터 5판까지 예술류에 사용된 주기의 유형

주기의 유형	초판	2판	3판	4판	5판
정의 및 설명주					
범위 및 포함주	○	○	○	○	○
참조주	○	○	○	○	○
분류지시주	○	○	○	○	○
타분류지시주	○	○	○	○	○
보조표첨가주	○	○	○	○	○
세분지시주	○	○	○	○	○
주제구분지시주	○	○	○	○	○
양자택일주	○	○	○	○	○
미사용주			○	○	○
재배치주			○	○	○
이전분류번호주				○	○
이전표목주				○	○
항목열거주	○				

KDC 4판에서 “예술에서 사용된 주기의 유형은 12가지 유형이며, 총692개의 주기가 사용되고 있다.”고 권홍정(2002)이 밝혔듯이 4판에서는 분류항목의 변화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분류항목의 변화가 많아지면 미사용주와 재배치주, 이전표목주, 이전분류기호주 등의 사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4판에서는 669인쇄술에 관련된 26개의 분류항목을 기술과학류의 586.7로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스포츠에서 잘못 배정된 종목들을 재조정 배치하였기 때문에 재배치주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5판에 사용된 주를 보면 포함주와 참조주가 많아졌다. 단 음악만 예외로 재배치주와 미사용주가 많아졌다. 그 이유는 현악기(677), 관악기(678), 한국음악(679)하에서 재배치와 세분 전개된 곳이 많아 그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4판에서 재배치주와 미사용주의 수가 각각 18개였지만 5판에서는 75개로 늘어났다.

이상과 같이 KDC 초판부터 5판까지 예술류에 사용된 주기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포함주, 참조주, 재배치주, 미사용주 순으로 많이 사용되어졌으며, 판을 개정함에 따라 특히 포함주가 많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어

편 주제가 표목의 일부는 아니지만 표목에 포함시키도록 명시한 포함주와 관련 주제를 참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참조주를 통하여 분류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또한 주제구분지시주, 세분지시주, 보조표첨기주 등을 사용하여 분류기호의 중복을 피할 수 있어 원하는 자료에 접근이 보다 더 용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판에서는 KDC의 모든 판 서설에서 “학문이 낱알이 발전되어 출판물이 홍수와 같이 쏟아져 나오에 따라 분류표의 조직도 더욱 복잡해져 가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제는 종전과 같이 분류항목만을 배열한 분류표로서는 정확한 분류를 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에 대비하여 KDC는 분류항목하에 될 수 있는 한 간략한 주를 달아 분류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한국도서관협회 2009)고 했지만, 명확하게 본표에 사용되고 있는 주기의 유형과 그 사용법에 일관성이 없어 분류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개정판에서는 ‘~와 같이 구분한다, ~와 같이 세분한다, ~와 같이 분류한다’로 다양하게 표시한 세분지시주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분류를 수행할 때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에 의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동일한 내용의 세분지시는 ‘~와 같이 세분한다’로 통일하고, 분류항목을 재조정된 후에 안내해 주는 주기를 잘못 표기하거나 빠뜨린 부분을 바로잡고, 다양한 유형의 주기를 필요한 표목아래에 적절히 사용하여 분류기호의 합성과 분류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2 보조표의 변천

현대의 대표적인 문헌분류표는 분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제의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보조표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문헌분류표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조표는 본표의 기호를 보완해 주는 것으로 열거식 분류표이든 조합식 분류표이든 현존하는 모든 주제를 본표에 분류항목으로 채택하기에는 제한된 공간상 어렵다. 그래서 가능한 한 대부분의 주제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의 유사한 체계의 보조표를 가지고 있다. 본표상에는 기본주제와 이들의 하위주제들만 열거해 놓고, 기본류나 하위류에 공통적으로 또는 특수한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는 개념들을 별도의 표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들을 보조표라고 할 수 있다(정해성 1998).

이러한 보조표는 분류표의 외형적 부피를 감소시켜

주고 분류표의 조직을 단순, 간결하게 하여 분류표의 이해 및 기억을 돕는 것으로 본표에 부가되는 별도의 표를 말한다. DDC에는 표준세구분, 지역·시대·인물 구분, 예술·개별문학·특수문학형식 구분, 언어공통구분, 민족 및 국가군구분, 언어구분 등 6개의 보조표가 있으며(Dewey 2003), NDC에는 형식구분, 지리구분, 언어구분, 언어공통구분, 문학공통구분, 해양구분 등 6가지의 일반 보조표가 있으며(일본도서관협회 1995), KDC에는 표준구분, 지역구분, 국어구분, 언어공통구분, 문학형식구분, 종교공통구분, 한국지역구분, 한국시대구분, 등 8개의 보조표가 마련되어 있어 분류시 동일한 개념이 분류표의 본표상에 어디에 나타나더라도 동일한 기호를 사용하여 개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표가 KDC 초판에서 5판까지 개정되는 동안 예술류에 사용된 것으로는 표준구분과 지역구분이다. 또한 조기성이 적용되고 있는 전주제구분과 특수주제의 공통세목(특수주제구분) 등이 있다. 이러한 보조표와 조기성이 적용되고 있는 전주제구분과 특수주제의 공통세목(특수주제구분)이 5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주제를 그 표현형식이나 자료의 물리적 형식, 체제 등에 따라 함께 모으고,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자 마련된 보조표인 표준구분은 KDC 초판에서 3판까지 형식구분이었으며, 4판부터 그 명칭이 표준구분으로 변경되었다. 3판까지 601-609 아래에 전개하던 예술류의 표준구분을 4판부터 600.1-.9로 변경하였으며, 예술류에서 유일하게 “예술에 관한 표준구분은 600.1-.9에, 미술에 관한 표준구분은 601-609에 분류한다”(한국도서관협회 1996)는 표준구분의 기호합성의 지시주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예술의 잡저에 해당하는 600.2에 ‘예술재료 및 기법’을 전개한 것처럼 표준구분에 해당하는 분류항목에 다른 주제를 전개한 경우에는 표준구분의 ‘0’의 사용규칙에 따라 예외임을 나타내는 지시주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시주가 없어 기호합성에 오류를 초래하여 분류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표준구분의 정확한 기호합성과 분류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준구분을 개별 분류항목으로 전개하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은 지시주로 기호합성을 지시함으로써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판에서 610 건축술 아래에 ‘600.1-600.9와 같이 전개한다’는 지시주는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610.1-.9와 같이 표준구분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보기〉	
600.2	예술재료 및 기법 예술의 잡지는 600.02에 분류한다.
600.4	예술의 주제 예술 강연집, 수필집, 연설문집은 600.04에 분류한다.
620	조각 및 조형미술 620.1-.9와 같이 표준구분한다.
632	금속공예 632.01-.09와 같이 표준구분한다.

둘째, 지역구분은 자료의 주제가 특정 대륙, 국가, 지역에 한정하여 다루어졌을 때 적용하는 보조표로서 KDC 예술류에서의 적용이 많지 않다. 3판까지 지리구분으로 사용하던 명칭을 4판부터 지역구분으로 변경하였으며, 초판에서 3판까지 예술류에서의 지역구분이 필요한 곳에 '910-979와 같이 구분한다'와 '910-979와 같이 지리구분한다'로, 4판에서는 '910-979와 같이 지역구분한다'로 기술하였다. 5판에서는 지역구분표를 6자리까지 세분 전개하고 본표에서 지역구분이 필요한 항목하에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와 '지역구분표 ~와 같이 세분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5판에서는 한국지역구분에 독도, 이어도를 구분하고, 북한지역을 상세히 세분 전개하여 통일에 대비하고 북한자료의 중복분류를 해결하였다. 이렇게 상세한 지역구분을 활용하여 기호합성을 할 수 있도록 분류항목 아래에 보조표 부가지시주(지역구분에 따라 세분한다)를 좀더 명확한 설명이 부가된 지시주(기본 분류번호 ~에 지역구분표의 ~(해당기호)를 부가한다)로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기호합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전주제구분은 주제에 의한 세분이 필요한 분류항목에 해당 주제의 분류번호를 첨가하여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표로 초판에서 3판까지 동일하게 '000-999와 같이 구분 한다'로 기술하던 것을 4판부터 '001~999와 같이 주제구분 한다'로 변경하였다(한국도서관협회 1996). 어떤 주제를 분류할 때 다른 주제에서 세분 전개된 것과 동일하게 세분 전개하도록 한 특수주제의 공통세목(특수주제구분)은 특수주제구분이 필요한 항목하에 초판부터 3판까지는 '~와 같이 구분한다' '~와 같이 분류한다', 4판과 5판에서는 '~와 같이 구분한다', '~와 같이 분류한다', '~와 같이 세분한다'로 기술하고 있어 분류에 혼동을 줄 수 있기에 '~와 같이 세분한다' 또는 '~와 같이 세분 전개한다'로 통일하여 기술

하여야 할 것이다.

4. 예술류(600)의 분류항목전개의 변천

KDC의 예술류(600)에 전개된 분류항목이 5판까지 개정됨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강·목·세목전개의 항목변화를 통하여 학문이 세분되고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주제가 분류표에 삽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KDC의 제2판은 '수정검토의 범위를 가능한 한 줄여서 오자와 탈자의 정정, 불합리한 부분의 정정'을 개정의 기본방침(한국도서관협회 1966)으로 제시한 것처럼 예술류의 분류항목전개의 별 다른 변화가 없으며 3판에서도 분류항목수의 변화는 없으며, 표목어의 상·하위개념의 조정이 있었다. 제4판과 5판의 개정사항을 보면 많은 항목이 새로이 추가 전개되고, 분류항목의 위치가 변경되기도 하고, 세목전개에 해당된 분류항목이 상위주제에 포함되어 삭제되거나 하위개념으로 세분전개 되었으며, 불필요한 분류항목을 삭제하였다. 이렇게 변화한 KDC 초판에서 5판까지 예술류의 분류항목수를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KDC 초판에서 5판까지 예술류의 분류항목수

분류기호와 주제	초판	2판	3판	4판	5판
600.1-.9 표준구분	64	64	62	62	62
610-619 건축술	93	93	92	97	101
620-629 조각 및 조형미술	49	49	49	50	54
630-639 공예 및 장식미술	43	44	44	46	47
640-649 서예	45	45	45	45	47
650-659 회화	80	80	80	89	111
660-669 사진술	70	70	70	44	55
670-679 음악	233	233	233	238	276
680-689 공연예술 및 매체예술	58	58	58	59	114
690-699 오락 및 스포츠	113	113	111	128	159
총항목수	848	849	849	858	1027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판에 따른 예술류의 분류항목수가 목·세목구분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4.1 예술의 표준구분(600.1-.9)

예술의 표준구분에 대한 항목전개는 제3판까지 601-609에 전개하였으나, 제4판부터 600.1-600.9로 변경되어 62개항목이 추가되고, 601-609는 미술의 표준구분으로

항목이 변경되면서 1개항목이 줄었다. 그러나 표준구분 -02는 예술 과 미술의 재료 및 기법이고, -04는 예술과 미술의 주제로 구분되어 표준구분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도 있다. 전체 항목수의 변화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KDC 초판에서 5판까지 예술류의 표준구분 분류항목수

분류기호	초판	2판	3판	4판	5판
600.1-.9	미사용	미사용	미사용	62*	62*
601	6*	6*	6*	5+	5+
602	7*	7*	7*	1+	1+
603	2*	2*	1*	1+	1+
604	18*	18*	18*	1+	1+
605	1*	1*	1*	1+	1+
606	4*	4*	3*	4+	4+
607	3*	3*	3*	4+	4+
608	1*	1*	1*	1+	1+
609	22*	22*	22*	1+	1+
계	64*	64*	62*	62+	62+

*표시는 예술의 표준구분을 의미, +는 미술의 표준구분을 의미함.

<표 3>에 제시된 예술류의 표준구분의 분류항목수를 보면 초판에서 3판까지 603과 606에서 각 한 항목씩 줄어든 것은 상위항목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해당 분류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예술의 표준구분에 해당하는 분류항목의 특별한 변화는 제4판에서 이루어졌다. 601-609 예술의 표준구분의 항목을 새로운 분류항목 600.1-.9를 신설하여 재배치하고, 601-609에 미술관련 표준구분의 항목으로 새롭게 전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전체 항목수가 62개 항목으로 초판보다 2개 항목이 줄었지만, 제3판과는 동일하다. 600.1 예술론은 6개 항목, 600.2 예술 재료 및 기법은 7개 항목, 600.6 학회, 단체, 기관, 회의 1개 항목, 600.7 연구 및 지도법 3개 항목, 600.8 전집 총서 1개 항목, 600.9 예술사 25개 항목으로 -01, -02, -04, -05, -07, -08은 그 전개항목수가 동일하고, -03사전은 -034 용어집을 상위구분인 -03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600.3 예술사전, 용어사전, 백과사전을 분류하도록 하고 -034 용어집은 삭제하였다. 600.6은 초판과 비교하면 3개 항목이 줄었다. 그 내용은 미술관, 박람회는 606.3으로, 미술관, 박물관, 개인수장품은 606.9로, 특수지방의 미술관, 박물관, 개인수장품은 606.91-.97로 위치를 변경하고 그 항목을 삭제하였다. 600.9 예술사는 시대구분에서 21세기에 관한 항목으로 3항목을 추가 전개하였다. 미술관련 표준구분 19항목을 합하면 81개 항목이 되고, 초판과 비교하면 17항목이 많아졌다. KDC

초판에서 5판까지 표준구분의 적용을 보면 기호합성에 대한 설명 및 안내주기가 없이 분류항목을 개별적으로 전개하고 있어서 분류기호합성에 일관성이 없고, 잘못 분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표준구분의 기호를 합성할 때 '0'의 패시를 하나이상 첨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지시해 주는 주기가 없다면 분류의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향후 분류표 개정에는 표준구분을 적용한 분류항목을 개별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기호합성에 대한 지시를 명확하게 주기하여 분류기호의 합성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조기성의 장점을 이용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2 건축술(610-619)

건축술은 인간의 여러 가지 생활을 담기 위한 기술·구조 및 기능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공간예술로서 예술적 감흥을 목표로 하는 공간형태는 예술에 분류항목으로 전개하고, 구조기술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분야는 건축공학(540)에 분류항목으로 전개하고, 각종 건축물과 건축물의 의장 및 장식을 다루고 있다. 초판부터 5판까지의 변화된 분류항목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KDC 초판에서 5판까지 건축술의 분류항목수

분류기호와 주제	초판	2판	3판	4판	5판
610.1-.9 표준구분	23	23	23	23	23
611 궁전, 묘사, 성곽	1	1	1	1	1
612 종교건물	4	4	4	4	4
613 공공건물	21	21	21	23	23
614 과학 및 연구용건물	1	1	1	1	1
615 공업용건물	1	1	1	1	1
616 상업, 교통, 통신용건물	17	17	17	17	17
617 주택건물	9	9	9	9	11
618 기타건물	15	15	14	16	17
619 장식 및 의장	1	1	1	2	3
총항목수	93	93	92	97	101

<표 4>에 제시된 건축술분야의 분류항목수를 보면 초판에서 3판까지는 거의 항목의 변화가 없었으며, 4판과 5판에서 몇몇 항목을 추가 및 세목전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변화한 내용을 보면, 3판에서 '618.65 미술관'을 606.9로 위치를 변경하여 삭제함으로써 한 항목이 줄

있으며, 4판에서 5개 항목, 5판에서 8개항목이 늘었다. 4판의 변화된 항목은 예술과 관계없는 '610.69 건축업'을 건축공학의 '540.2 건축활동'쪽으로 위치변경을 하고 분류항목을 삭제하였으며, 613.1 도서관, 613.2 박물관, 미술관, 618.64 어린이놀이터, 619.5 실내장식 일반을 새로운 분류항목으로 추가 전개하고, 618.9에 포함된 '도살장'을 618.95에 별도 분류항목을 배정하였다. 4판은 '새로운 학문발전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시켜 새로운 항목을 배정하고, DDC20판과 NDC9판 시안을 참고하여 일선 사서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최대한 수용 전개한다'(한국도서관협회 1996)는 개정방침에 따라 필요한 곳에 새로운 분류항목을 전개하였지만 DDC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빈약하다(윤춘섭 2001). 5판의 항목변화를 보면, '617.8 아파트, 여관 호텔'을 '전통적 주택'으로 주제의 범위를 넓히고, 여관과 호텔은 617.7로 위치변경을 하고 '617.81 단독주택, 617.82 복합주거' 등 2개 항목을 새로운 분류항목으로 전개하였으며, '618.8 묘지, 619.8 리모델링' 2개 항목을 새로이 전개하였다. 초판부터 5판까지 분류표의 류·강·목의 기본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합리한 부분만을 일부 조정하였다.

4.3 조각(620-629)

조각은 입체를 수단으로 하여 공간에 표현하는 조형미술의 한 부분으로 조소라고도 한다. 조각은 회화와 더불어 인류문화의 가장 오래된 예술이다. 조소재료 및 기법과 입체를 형성하는 소재(나무, 돌, 금속 등)별로 구분하여 항목전개를 하고 있으며, 초판부터 5판까지의 분류항목의 변화를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KDC 초판부터 5판까지 조각의 분류항목수

분류기호와 주제	초판	2판	3판	4판	5판
620.1-9 표준구분	8	8	8	9	9
621	X	X	X	X	X
622 조소재료 및 기법	13	13	13	13	14
623 목조	1	1	1	1	1
624 석조	1	1	1	1	1
625 금동조	1	1	1	1	1
626 점토조소	1	1	1	1	1
627 기타재료	5	5	5	5	6
628 조각, 인장	5	5	5	5	6
629 제상	14	14	14	14	15
총항목수	49	49	49	50	54

<표 5>에 제시된 조각분야의 분류항목수를 보면 초판에서 3판까지는 동일하고, 4판의 1개 항목, 5판에서 4항목을 새로운 분류항목으로 채택 전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제4판에서 한 항목이 늘어난 것은 새로운 주제를 분류항목으로 채택한 것이 아니고 시대구분에서 21세기를 추가항목으로 전개한 것이다. 제5판에서 새로운 항목으로 전개한 것을 보면, 622.6 양각을 상위주제인 조각의 유형으로 변경한 후 622.61 양각, 622.62 음각, 622.3 환각을 새 항목으로 전개하였으며, 627.97 기타, 628.91 기념주화, 629.33 성가족상을 추가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620 조각분야도 610 건축술분야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가능한 한 전판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겠다고 한 개정방침을 잘 반영하였으며, 일관된 분류를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장서관리를 할 수 있다.

4.4 공예, 장식미술(630-639)

공예는 실용적인 물건에 장식적인 가치를 부가함으로써 한층 더 그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미술을 의미한다. 공예를 분류할 때에는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는 재료와 기술에 의한 것이다. 입체적인 것에서 평면적인 것으로 배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리-도자기-보석-금속공예-목공예-칠공예-편조-염직-인쇄-제지-사진. 이것들 외에도 인공재료나 합성수지 등 다양한 재료와 기술들이 등장하였다. 같은 재료라고 해도 그것을 가공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가공방법이 달라지면 만들어져 나온 작품도 달라지므로 수없이 분류해야 한다."고 하였다(동아원색대백과사전 1989). 그러면 KDC 초판에서 5판까지 공예의 분류항목 전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에 제시된 공예·장식미술 분야의 분류항목수를 보면 초판에서 5판까지 개정되는 동안 변화된 항목은 없고, 2판에서 636.9 조화, 4판에서 634.3 바가지공예, 639.5 산업디자인, 5판에서는 634.4 화훼공예를 새로운 분류항목으로 전개하였다. 이는 새로운 재료와 방법에 따라 만들어진 작품들을 분류항목으로 채택한 것이다. 새로운 판에서는 보다 다양한 재료와 기법에 따른 작품들을 분류할 수 있도록 분류항목의 세분 전개가 필요하다. 컴퓨터를 활용한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과 같은 주제의 전개도 필요하다.

〈표 6〉 KDC 초판에서 5판까지 공예·장식미술분야의 분류항목수

분류기호와 주제	초판	2판	3판	4판	5판
630.1-630.9 표준구분	X	X	X	X	X
631 도자공예, 유리공예	7	7	7	7	7
632 금속공예	13	13	13	13	13
633 보석, 갑각, 폐류공예	5	5	5	5	5
634 목, 죽, 왕골공예	5	5	5	6	7
635 칠공예	1	1	1	1	1
636 염직물공예	4	5	5	5	5
637 고무, 플라스틱공예	2	2	2	2	2
638 미술가구	5	5	5	5	5
639 장식 및 도안	1	1	1	2	2
총항목수	43	44	44	46	47

4.5 서예(640-649)

서예는 문자를 소재로 하는 조형예술로서 점과 선·획의 태세, 장단, 필압의 강약, 경중, 운필의 지속과 먹의 농담, 문자 상호간의 비례 균형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묘한 조형미가 이루어진다(동아원색대백과사전 1989). KDC가 초판에서 5판까지 개정되어 오는 과정에 분류항목수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KDC 초판에서 5판까지 서예의 분류항목수

분류기호와 주제	초판	2판	3판	4판	5판
640.1-640.9 표준구분	3	3	3	3	3
641 한자의 서체	9	9	9	9	9
642 한자서법	8	8	8	8	8
643 한글서법	2	2	2	2	5
644 기타서법	3	3	3	3	3
645	X	X	X	X	X
646 펜습자	6	6	6	6	6
647 낙관, 수결	1	1	1	1	1
648 서문, 서첩, 법첩	6	6	6	6	6
649 문방구	7	7	7	7	7
총항목수	45	45	45	45	48

〈표 7〉에 제시된 서예의 분류항목수를 보면 5판까지 개정되는 과정에서 가장 변화가 없는 분야이다. 제5판에서 한글서법(643) 하에 3항목(판본체, 혼서체, 기타서체)을 새로운 분류항목으로 채택한 것 외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 특히 서예는 고대 중국에서 발달하여 한자문화권에 있는 나라에 계승 발달된 분야로서 다른 분류표보다 세분 전개되어 있다. DDC(2003)에서는 745.6199 기

타 형식으로 세목 전개되어 있지만, NDC(1995)에서는 728 서도하에 15개의 분류항목으로 세분전개하고 있다.

4.6 회화(650-659)

회화는 색과 선의 집합에 의하여 평면상에 어떤 형태를 단독으로 또는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낸 조형미술로서 재료·소재·표현의 방법 및 목적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주로 그 표현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유화, 템페라화, 모자이크, 파스텔화, 수채화, 묵화 등으로 구분하며, 그림이 어디에 그려지는가에 따라 캔버스화, 벽화, 지분화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그려진 제재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종교화, 역사화, 인물화, 정물화 등으로, 표현방법에 따라 구상회화, 추상회화 등으로, 표현의 수단과 목적에 따라 판화, 소묘 등으로 구분한다(동아원색대백과사전 1989).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회화분야를 KDC 초판에서 5판까지 전개한 분류항목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KDC 초판에서 5판까지 회화분야의 분류항목수

분류기호와 주제	초판	2판	3판	4판	5판
650.1-650.9 표준구분	7	7	12	13	14
651 채색이론 및 실제	1	1	1	1	1
652 회화의 재료 및 방법	8	8	8	8	8
653 시대별 및 국별회화	16	16	16	16	16
654 주제별회화	18	18	18	19	33
655	X	X	X	X	X
656 소묘, 도화	12	12	12	12	12
657 만화, 삽화	9	9	9	9	12
658 도안 포스터	2	2	2	4	7
659 판화	7	7	7	7	8
총항목수	80	80	85	89	111

〈표 8〉에 제시된 회화의 분류항목수를 보면 제2판까지는 동일하며, 제3판에서 5개 항목이 많아진 것은 새로운 주제를 전개한 것이 아니고 표준구분 -01~-05를 분류항목으로 전개한 것이므로 실제적인 변화는 없었으며, 제4판에서는 650.74 화실, 아틀리에, 654.35 민화, 658.3 그래픽디자인, 658.5 문양 등 4개 항목이 추가 전개되었으며, 제5판에서 22개 항목이 새로이 추가 전개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새로운 분류항목으로 추가한 650.9 회화사(미술사)는 609에도 전개하고 있으므로 한 곳은 삭제

하여야 하며, 654.2 종교화의 경우에는 220-290과 같이 주제구분을 적용하여 세분하도록 지시한 부분을 개별 세목으로 전개하여 14개의 항목을 추가 전개하였다. 그리고 657 만화에서는 새롭게 나타난 웹만화, 디지털만화, 캐리커처 등을 새로운 분류항목으로 전개하였으며, 동서양의 문양을 세목으로 전개하였기 때문에 항목수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표준구분과 주제구분에 의하여 세분되는 분류항목의 경우 그것을 개별적인 분류항목으로 전개하지 않고 '~와 같이 구분한다', '~와 같이 세분한다'는 주를 명기하고 세분 전개하지 않도록 한다. DDC를 비롯한 십진식분류법에는 조기성을 도입하여 분류담당자가 분류할 때 기억을 도와주고, 분류표를 간단하게 해주는 장점을 갖고 있기에 조기성에 관계된 부분은 세분 전개하지 않고 '주기'로 기호합성에 대한 설명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7 사진술(660-669)

사진은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감마선, 전자선 등의 작용에 의해서 감광층 위에 물체의 반영구적인 영상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사진술은 기술인 동시에 예술이기도 하다. 사진술은 원래 자연과학에 바탕을 둔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과학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놀랍게 진보하였으며, 사진술은 대중의 흥미와 사회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예술, 의학, 과학과 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동아원색대백과사전 1989). 이러한 사진술분야에 관련된 주제들이 KDC 초판에서 5판까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분류항목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KDC 초판에서 5판까지 사진술의 분류항목수

분류기호와 주제	초판	2판	3판	4판	5판
660.1-660.9 표준구분	4	4	4	4	4
661 사진기계, 재료	8	8	8	8	9
662 촬영기술	7	7	7	7	7
663 음화처리	7	7	7	7	7
664 양화처리	5	5	5	5	5
665	X	X	X	X	X
666 특수사진술	8	8	8	8	18
667 사진응용	4	4	4	4	4
668 사진집	1	1	1	1	1
669 인쇄술	26	26	26	X	X
총항목수	70	70	70	44	55

<표 9>에 제시된 사진술 분야의 분류항목수를 보면 가장 큰 변화는 제4판에서 669 인쇄술에 전개된 26개 항목을 586.7 펄프, 종이 및 동계공업 아래에 새로운 항목으로 전개하고 분류항목 669는 모두 삭제하였으며, 제5판에서 666특수사진술 아래에 666.7 소형영화를 '영상물 및 비디오촬영'이란 포괄적인 용어로 변경한 후 영화촬영과 비디오촬영, 동영상 및 UCC촬영 등의 10개의 새로운 분류항목을 새로이 세분 전개하여 영화제작과 영화촬영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 발행된 5판에서 인쇄술의 예술적인 부분과 컴퓨터응용사진술에 관련된 분류항목(예: 디지털사진)을 누락시킨 것은 개정할 당시에 유사 분류표를 참고하지 않았거나, 이 분야의 출판동향의 조사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003년에 간행된 DDC 22판을 보면 컴퓨터를 응용한 사진술에 관련된 자료를 분류할 수 있도록 775 Digital photography, 776 Computer art아래에 전개하고 있다. 향후 분류표를 개정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출판동향 및 문헌조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새로운 영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4.8 음악(670-679)

음악은 소리를 소재로 해서 박자, 선율, 화성, 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조합시켜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을 의미한다. 음악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초기의 음악은 이론음악과 실천음악(연주) 및 창작음악(작곡)으로 분류하였고, 근대적 의미에서 예술로서의 음악의 분류는 사회적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실용음악과 자유음악으로, 장소에 따라 야외음악, 실내음악, 가정음악 등 또한 다른 예술장르와 결합에 따라서 영화음악, 무용음악, 극음악 등으로, 전달수단에 따라 방송음악 텔레비전음악 등으로, 표현매체에 따라 성악과 악기로 분류하고 있다(동아원색대백과사전 1989).

KDC 예술류에서 가장 많은 분류항목을 전개하고 있는 음악분야가 초판에서 5판까지 개정되는 동안 어떻게 분류항목이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에 제시된 음악 분야의 분류항목수를 보면 초판에서 5판까지 개정되는 동안 46항목이 늘어났으며, 3판까지는 항목의 변화가 없이 동일하며, 한경신(1999)이 "KDC 초판부터 4판까지 음악분야의 변천과정을 보면, 초판부터 3판까지는 단 한가지 용어상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똑같이 전개되고 제4판에 와서 개정을 위한 노력의

흔적은 엿보이기는 하나 서양악기명의 외래어 표기를 정돈한 것 외에는 이전의 판들과 거의 유사하다”고 했듯이 4판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 그 내용을 보면, 전판에서 전개된 분류항목을 삭제하고 새로운 분류항목으로 위치를 변경한 항목이 대부분이다. 새로운 주제를 삽입 전개한 경우는 4판에서 대중음악(673.5)과 가곡(673.8) 아래에 동양음악, 한국음악, 서양음악을 개별세목으로 전개한 것과 676 건반음악을 건반악기와 타악기로 표목을 변경하여 항목전개의 범위를 넓힌 다음에, 676.9 기타 건반음악을 676.8로 위치를 변경하고 678.9에 전개되어 있던 ‘타악기’를 676.9 아래에 8개의 새로운 분류항목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컴퓨터음악을 새로운 주제로 전자음악에 포함시켰으며, 타악기(678.9-.994) 아래에 전개되었던 13개의 분류항목은 재배치하고 사용하지 않았다.

〈표 10〉 KDC초판에서 5판까지 음악의 분류항목수

분류기호와 주제	초판	2판	3판	4판	5판
670.1-670.9 표준구분	15	15	15	16	16
671 음악이론 및 기법	28	28	28	29	29
672 종교음악	13	13	13	13	13
673 성악	36	36	36	42	42
674 극음악	15	15	15	15	16
675 기악합주	16	16	16	16	16
676 건반악기	11	11	11	21	23
677 현악기	15	15	15	15	16
678 취주악기	31	31	31	18	25
679 국악	53	53	53	53	80
총항목수	233	233	233	238	276

5판에서는 38개의 새로운 분류항목이 늘어났으며, 특히 국악(679)에서 많은 조정이 이루어졌다. 5판에서는 674 극음악에서 한 항목, 676 건반악기에서 2개 항목, 677 현악기에서 한 항목, 678 취주악기에서 7개 항목, 국악에서 27개 항목이 새로이 추가 전개되어 초판보다 43개 항목이 많아졌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674.7 텔레비전음악 아래에 드라마OST(674.75)를, 리드오르간(676.6)과 전자오르간(676.7)을 새로운 분류항목 676.53과 676.59로 위치를 변경하고 ‘676.6은 기계악기 및 이올리언, 676.7 전자악기 및 컴퓨터악기로 주제를 변경하였다. 677현악기에서 새로이 전개된 분류항목은 ‘677.1 이론 및 기법’ 한 항목이지만, 현악기의 종류를 악기별로 재배열하여 그 분류항목의 위치를 변경한 것이 14개 항목이 되므로 실제적인 항목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678 관악기(취주악기)에서는 16개 항목이 위치변경을 하였으며, 678.2 트럼펫을 상위주제인 금관악기로 변경하고 그 아래 하위주제로 678.22로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그 이외의 금관악기의 종류를 7개 분류항목으로 추가 전개하였다.

679 국악은 ‘한국음악 및 동양전통음악’으로 표목어를 변경하고, 43개 항목의 위치를 재배치하였으므로 전체 27개의 항목이 늘어났다. 그 내용을 보면, 679.1 국악이론을 6개의 분류항목으로 새로이 추가 전개하였으며, 정악을 새로운 분류항목으로 679.2에 배정하고 그 아래에 7개 항목으로 세분 전개하였으며, 679.31 가창법은 679.21로 위치변경을 한 후 ‘성악’으로 배정하여 민요, 판소리 등 국악의 종류를 세분 전개하였다. 679.5 국악의 모든 연주악에 관련된 6개 항목을 모두 재배치하고 표목어를 창작국악으로 바꾸어 성악 7개 항목, 기악 6개 항목, 종교음악 1개 항목, 북한창작음악 1개 항목으로 세분 전개하였다. 타악기는 679.89에서 10개 항목으로 세분 전개된 것을 679.6으로 위치변경을 하여 유희악기(679.61)과 무용악기(679.62)로 항목수를 줄여서 새로운 분류항목으로 전개하였으며, 현악기(679.7) 아래에 전개된 개개 악기를 상위주제인 칠현악기(679.71), 발현악기(679.72), 타현악기(679.73)에 포함시켜 분류하도록 지시하고, 개개 악기로 세분하였던 분류항목은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다. 679.8 취주악기를 관악기로 표목어를 바꾸고 세분된 분류항목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주제로 변경하였다. 678.83-679.899까지 17개의 분류항목을 재배치하고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4판까지 전개하지 않았던 북한창작음악을 679.59에 배정하고, 동양전통음악을 679.9에 배정하고 그 아래에 아시아 각국의 전통음악을 8개 분류항목으로 세분 전개하여 분류의 중복을 피할 수 있고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분류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4.9 연극(680-689)

연극은 배우가 연희의 장소에서 관객을 앞에 두고 희곡 속의 인물로 분장하여 몸짓 동작과 대사로써 만들어내는 공연예술 또는 무대예술을 의미한다(동아원색대백과사전 1989). KDC 예술분야에서 두 번째로 새로운 분류항목을 추가 전개한 분야이다. 5판에서 표목을 연극에서 포괄적인 용어 공연예술 및 매체예술로 변경하였으며, 그 분류항목의 변화를 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KDC 초판에서 5판까지 연극의 분류항목수

분류기호와 주제	초판	2판	3판	4판	5판
680.1-680.9 표준구분	2	2	2	2	7
681 극장, 연출, 연기	5	5	5	5	16
682 가면극	2	2	2	2	6
683 인형극	1	1	1	1	X
684 각종연극	10	10	10	11	17
685 무용, 발레	5	5	5	5	15
686 라디오극(방송극)	1	1	1	1	10
687 텔레비전극	1	1	1	1	10
688 영화	22	22	22	22	22
689 대중연예	9	9	9	9	11
총항목수	58	58	58	59	114

〈표 11〉에 제시된 연극분야의 분류항목수의 변화를 보면 초판부터 3판까지는 동일하고, 4판에서는 684 각종연극 아래에 판토마임(684.95) 한 항목이 새로운 분류항목으로 추가 전개되었으며, 5판에서 늘어난 항목은 55개 항목이다. 5판에서는 표준구분을 적용한 분류항목을 새로이 전개하였으며, 특히 681(극장, 연출, 연기), 685(무용, 발레), 686(라디오극)과 687(텔레비전극) 아래에 새로운 분류항목을 추가 세분 전개하였다. 681.2 무대(극장)의 형태를 6개의 유형으로 세분 전개하였으며, 681.3 무대장치를 하위항목의 681.31로 위치를 변경하고 ‘제작’으로 표목을 바꾸어 ‘681.32 특수효과, 681.33 의상, 681.34 분장’으로 세분 전개하였다. 분류항목 682는 ‘가면극’에서 표목을 ‘연희’로 변경하고, 가면극은 하위 분류항목인 682.1로 재배치하였다. 683 인형극은 682.2로 재배치하고 그 분류항목을 사용하지 않으며, ‘683.3 광대굿놀이, 683.4 줄타기, 683.7 마당놀이’ 등 3개의 분류항목을 추가 전개하였다.

684 각종연극 아래에 -01~-09 표준구분 중에 7개 항목을 새로이 추가 전개한 것을 보면 ‘-015 비평, -09 연극사 아래에 발달, 비평, 연극사, 작품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연극의 비평을 684.015와 684.09 두 곳에 배정하여 분류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684.1 신파, 산극, 근대극, 구극에서 구극은 679.4 창극으로 재배치하고, 684.95 판토마임을 684.8로 재배치한 후 분류항목 684.95는 사용하지 않는다. 685 발레, 무용 아래에 -01 무용이론, 02 안무, -09 무용사를 분류항목으로 전개하였으며, 685.1 무용을 한국무용으로 변경하고, 그 아래에 한국무용(685.11)과 창작무용(685.12)을 새로운 분류항목으로 세분 전개하였다. 그리고 685.2에 국가별 무용을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 전개하였으며, 685.4 탭댄스를 685.42로 위치를 변경하

고 685.4는 버라이어티쇼 및 극장식 무용으로 주제를 변경한 후 685.42 탭댄스와 685.43 재즈댄스로 세분 전개하였다. 685.5 발레를 발레 및 현대무용안무로 표목을 변경하여 685.01 무용이론과 685.02 안무를 추가 배정하였다. 특히 686 라디오극을 라디오극 및 음성매체예술로 표목을 변경하여 9개의 새로운 분류항목을 추가 전개하였으며, 687 텔레비전극도 텔레비전극 및 시청각매체 방송예술로 표목을 변경하고 9개의 새로운 분류항목을 세분 전개하였다. 688.4 과학영화를 688.3으로 재배치하고 표목을 전위영화로 변경하였으며, 688.5 기록영화, 뉴스영화는 688.3으로 재배치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688.82 흑백영화를 새로이 추가 전개하였으며, 689 대중연예 아래에 689.3 기술, 미술을 689.31 요술과 689.32 카드트랙으로 구분 전개하였다. 따라서 향후 개정시에는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 조기성 기호를 조정하면서 재배치한 분류항목의 주제를 삭제하고 위치변경을 명기하여 분류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10 오락, 스포츠(690-699)

오락 또는 레크레이션은 일상생활에서 쌓이는 정신적·육체적 피로에서 해방되어 심신의 긴장을 풀고 기분을 전환하는 즐거운 활동들을 의미하며, 그 내용의 분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각각양색이지만 유희, 게임, 스포츠, 경기, 편히 쉬기, 기분전환, 오락, 예능 취미, 도락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스포츠는 경쟁과 유희성을 가진 신체운동경기의 총칭으로서 경기규칙에 따라 승패를 겨루는 신체적 활동을 의미하며, 낚시, 바둑, 장기, 체스, 등산, 하이킹, 사냥 등도 넓은 의미로 스포츠에 해당된다(동아원색대백과사전 1989). KDC 초판에서 5판까지 오락·스포츠분야의 분류항목의 변화를 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에 제시된 오락·스포츠의 분류항목수의 변화를 보면 초판과 2판은 동일하고, 3판에서 2항목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692.5 체육의학과 692.514 체육생리학을 511.171로 위치를 변경한 후 분류항목을 삭제하였기 때문이다. 4판에서는 17개 항목이 늘어났으며, 5판에서는 31개 항목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4판에서 691 오락의 항목이 줄어든 것도 해당 주제의 위치를 재배치하였으며, 컴퓨터게임과 전자오락을 새로운 분류항목으로 추가 전개하였다. 697 동계운동경기 아래에 8개 항목의 위치를 재배치하고 그 분류항목을 삭제한 후에, 697.069 동

계종합체육대회를 새로운 분류항목으로 전개하였다. 13개 항목이 늘어난 698 무예는 무예의 종류를 세목 전개하였으며, 699아래에 기타 레저 스포츠를 새로운 항목으로 699.6에 배정하고, 699.9 기타 취미생활에 4개 분류항목을 배정하여 전개하였다.

〈표 12〉 KDC 초판에서 5판까지 오락, 스포츠의 분류항목수

분류기호와 주제	초판	2판	3판	4판	5판
690.1-690.9 표준구분	X	X	X	X	X
691 오락	22	22	22	20	41
692 체육, 스포츠	12	12	10	15	15
693 체조, 유희	6	6	6	6	6
694 육상경기	6	6	6	7	7
695 구기	19	19	19	20	20
696 수상경기	14	14	14	16	23
697 동계운동경기	17	17	17	10	10
698 무예	10	10	10	23	25
699 등산, 하이킹, 수렵, 낚시	7	7	7	11	12
총항목수	113	113	111	128	159

5판에서의 항목변화를 보면 691.4 마작을 '빙고'로 바꾸어 691.42 체비뽑기, 691.47 도미노, 691.48 마작으로 세분전개하고, 691.7 댄스 아래에 2개 항목(포크댄스와 사교댄스)이었던 것을 댄스의 유형을 14개의 항목으로 세분 전개하고, 696 아래에 수상 및 공중경기를 종류별로 세분 전개하여 항목수가 많이 늘어났다.

5. 결론

KDC는 1964년 초판을 발행하여 2009년 5판까지 개정되어 오는 동안 용어와 분류항목의 전개가 변경되고 새로이 추가 전개되었다. 특히 류·강·목의 변경은 가능한 한 피하고, 새로운 학문발전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시켜 새로운 항목을 배정하고, 적절하지 못한 용어는 시대에 맞는 용어로 대체하고, 각종 조기성 기호도 일부 조정하였다. 또한 DDC와 NDC를 참고하여 일선 사서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최대한 수용 하였으며, 그동안 학문체계나 자료구성면에서 문제가 되었던 분류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방침에 따라 개정된 KDC 예술류의 분류항목전개가 초판에서 5판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DC 초판에서 5판까지 예술류에 전개된 용어의 변화를 보면, 3판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4판과 5판에서 용어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부적절한 용어를 합리적인 용어와 시대에 맞는 현대어로 변경하였으며, 새로운 주제를 표목에 포함시키거나 새로운 분류항목으로 세분 전개하였다. 그러나 예술류에서 컴퓨터의 활용 및 응용에 관련된 디자인 및 사진에 대한 항목이 누락되었다. 향후에는 이러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KDC 초판에서 5판까지 사용된 예술류의 주기를 보면, 판에 따라 동일하지 않으며, 주제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다. 5판까지 사용하고 있는 예술류의 주기는 포함주, 참조주, 분류지시주, 티분류지시주, 양자택일주, 보조표사용주, 주제구분주, 세분지시주, 미사용주, 재배치주, 이전분류번호주, 이전표목주 등 12가지였으며, 포함주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3판에서 분류항목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면서 미사용주와 재배치주가 사용되고, 4판과 5판에서 분류항목의 변화가 많아지면서 그 변화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전표목주와 이전분류번호주가 사용되었다.

셋째, KDC 초판에서 5판까지 예술류에 사용된 조기성이 적용되고 있는 보조표는 표준구분, 지역구분, 전주제구분, 특수주제의 공통세목이다. 3판까지는 변화가 없으며, 4판과 5판에서는 유일하게 '예술류에 관한 표준구분은 600.1-.9에, 미술에 관한 표준구분은 601-609에 분류한다'는 지시주가 사용되었으며, 그 외에는 전판과 동일하다. 지역구분은 3판까지 지역구분이 필요한 곳에 '910-979와 같이 구분한다'와 '910-979와 같이 지리구분하다'고 지시하였으며, 4판에서는 '910-979와 같이 지역구분한다'로, 5판에서는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와 지역구분표 ~와 같이 세분한다'는 지시주로 지역구분 지시하고 있으나, 예술류에서는 지역구분의 사용이 미비하고 기호합성에 대한 설명이 미비하여 이해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류에서 지역구분의 사용을 확대하여 분류기호의 중복을 피하고, 지시주를 '기본분류기호 ~에 지역구분표에서 기호-1~88을 부가한다'로 변경함으로써 기호합성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어 분류의 오류를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전주제구분은 3판까지 '000-999와 같이 구분한다'고 지시하던 것을 4판부터 '001-999와 같이 주제구분한다'로 변경되었으며, 특수주제의 공통세목은 3판까지 '~와 같이 구분한다'와 '~와 같이 분류한다'로 지시하던 것을 4판과 5판에서는 '~와 같이 구분한다', '~와 같이 분류한다', '~와 같이 세

분한다'로 지시하고 있는데 다음 개정 때에는 '~와 같이 세분한다'로 통일하여 기호합성에 일관성이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조표의 사용 및 기호합성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명기하여 분류의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KDC 예술류에 전개된 분류항목이 초판에서 3판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4판과 5판에서 분류항목전개에 변화를 주었다. 5판까지 개정되는 동안 불합리하게 배치된 부분을 재배치하였으며, 상위개념 아래에 하위개념을 새로운 분류항목으로 세분전개하거나 새로이 생겨난 주제를 세분 전개하였으며, 표준구분과 주제구분이 필요한 항목 아래 '~와 같이 표준구분한다', '~와 같이 구분한다'와 같이 지시했던 부분을 개별적인 분류항목으로 전개하여 분류항목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초판에서 848항목이었던 분류항목이 5판에서 1027항목으로 169개의 항목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분류항목전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재배치하거나 삭제하였기 때문에 그 항목이 줄어 든 분야도 있다. 분류항목을 재배치하고, 새로운 주제를 전개하고, 삭제할 때 신중해야 한다. 분류 전문가와 현장사서들이 제시한 문제점을 수용하고, 동일한 유형의 분류표를 참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출판동향을 분석하고, 예술류의 몇몇 주제를 제외하고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지 않아서 예술적인 요소에 국한된 인쇄디자인은 예술 아래의 분류항목으로 전개하여야 하지만 669 인쇄술을 제조업 하에 586.7로 변경하고 분류항목을 삭제하는 오류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오늘날 컴퓨터를 응용한 예술분야의 출판물이 증가하고, 이용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영역이지만 2009년 발행된 5판의 분류항목전개에 누락시키는 우를 범하였다. KDC의 예술류는 분류항목하에 하위주제들을 상위주제와 동일하게 분류하도록 지시한 포함주의 사용이 많아 부류항목의 전개가 빈약하다. 다음 분류표를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포함주에 있는 주제의 출판동향을 조사하여 개별 항목으로 세분 전개하여 분류기호의 중복을 피하여 자료이용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KDC가 5판까지 개정되는 동안 예술류의 분류항목전개에 나타난 문제점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새로운 개정판에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제를 영역별로 연구하고, 문제점과 예상되는 변경분야에 대해 전문가와 논의하며, 문헌적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출판동향을 조사하고, 주제전문가와

협의하며, 제안된 변경사항이 이용자와 분류표의 다른 부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파악하는 과정을 철저히 거쳐야 할 것이며, KDC의 개정을 전담하는 부서와 담당자가 있어서 분류법의 수정 및 개정에 관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권홍정. 2002. 『한국십진분류법(KDC) 주기분포의 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자후. 1997. KDC(한국십진분류표) 4판에 대한 제언 『도서관학논집』, 27: 369-386.
- 김자후. 2009. KDC 5판에 대한 제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5-26.
- 동아원색대백과사전. 1989. 『제9판』. 서울: 동아출판사.
- 윤희운. 2010. 『정보자료분류론』. 완전개정제3판. 대구: 태일사.
- 오동근. 2009. 『KDC5의 이해』. 대구: 태일사.
- 이승민. 2000. 『KDC에서의 주기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정해성. 1998. 분류표에서 사용하는 보조표에 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28: 193-218.
- 정해성. 2007.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개정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529-546.
- 한경신. 1999.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음악분야 전개상의 제문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1): 31-49.
- 한국도서관협회. 1964. 『한국십진분류법』.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1966. 『한국십진분류법』. 수정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분류분과위원회. 1980. 『한국십진분류법』. 제3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1996.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2009.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日本圖書館協會. 1995. 『日本十進分類法, 新訂9版』.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 Dewey, Melvil. 2003.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2nd ed. Albany, N. Y.: Forest Press.